

# 붉은귀 거북·큰입배스... 생태계 교란종을 잡아라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돼지풀... 생태계 교란종(種)을 잡아라.” 번식(산란)기를 앞두고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퇴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계 교란종(18종)은 토종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의 다양성을 위협한다. 생명존중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에도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보전해야하는 탓에 올해도 어김없이 생태계 교란종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붉은귀거북, 방생하지 마세요”=북미산(産)으로 관상용으로 들어온 붉은귀거북은 불교계에서 방생 행사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붉은귀거북은 엄연히 법에서 정한 생태계교란종으로 수입이나 유통이 금지돼 있다. 잡식성으로 미꾸라지, 붕어, 알, 개구리, 뱀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수명도 20~30년에 이르고 3~4급수의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살아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블루길(파랑볼우럭)도 생태계를 교란하는 종이다. 이들은 알, 치어 등을 가리지 않고 잡아먹어 토종 어류의 설자리를 빼앗고 생태계의 순환을 가로막는다.



붉은귀거북



블루길

## 미꾸라지·붕어·개구리 등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돼지풀·양미역취 등 식물 12종도 토종식물 위협 영산강유역환경청, 포획단 운영 퇴치사업 본격화

대표적 생태계 교란종으로 유일한 포유류인 ‘뉴트리아’는 아직까지 광주·전남에는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례군의 한 저수지에서 뉴트리아가 관찰됐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현장 조사에 나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달로 확인했다. 돼지풀, 양미역취 등 식물 12종도 토종 식물의 설자리를 빼앗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돼 있다.

◇영산강환경청, 큰입배스 등 8종 퇴치 주력= 번식기(산란기)를 앞두고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본격적인 퇴치사업에 나선다. 영산강환경청은 퇴치에 주력할 생태계 교란종으로 큰입배스, 블루길(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서양금혼초, 가시박, 돼지풀, 도깨비가지 등 8종을 선정.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블루길과 큰입배스 포획을 위해 내

수면어업허가가 있는 어업인으로 구성된 상시 포획단을 운영한다. 낚시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블루길, 큰입배스 낚시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상지로는 담양호, 나주호, 장성호, 주암호 등이며 포획을 위한 사업비로 7000여만원을 배정했다.

가시박,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식물종 퇴치도 연중 영산강상류지역과 담양, 함평, 구례 등지에서 이뤄진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식물 퇴치사업의 경우 4000여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했으며, 손으로 일일이 뿌리째 뽑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붉은귀거북과 황소개구리는 서식지 조사를 거친 뒤 대상지를 정해 5월부터 퇴치에 돌입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생태계 교란종 포획과 폐기처분이 생명존중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우리 고유 동식물과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조치”라며 “관련법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종을 수입, 방생, 보관, 유통 등을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8, 해질 19:00, 달 뜨기 00:00, 달 지기 09:59

#### 봄 나들이 좋은 주말!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5/21	보성	맑음	4/18
목포	맑음	5/16	순천	맑음	7/19
여수	맑음	8/16	영광	맑음	3/17
나주	맑음	3/21	진도	맑음	4/16
완도	맑음	6/17	전주	맑음	3/20
구례	맑음	4/20	군산	맑음	4/17
강진	맑음	4/19	남원	맑음	4/19
해남	맑음	3/19	홍산도	맑음	6/12
장성	맑음	3/19			

#### ◇바다 날씨

지역	면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1.0
남해	남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남해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면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1.0~2.5

#### ◇생활지수

수면	100
운동	80
빨래	96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45	10:55
	17:49	23:03
여수	00:17	06:25
	12:26	18:24

#### ◇주간 날씨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	☀	☁	☁	☀	☀	☀
6/23	8/20	9/15	7/12	6/21	8/20	8/19



은 힘 다한 ‘벽돌쌓기’ 9일 광주시 북구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15 광주 기능경기대회’ 조직부문에 참가한 응시생이 심혈을 기울여 벽돌을 쌓아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지난해 호남·제주 산재 사망 200명

재해율, 광주 0.58%·전남 0.55%... 전국 평균보다 높아

### 광주·전남 산재예방자문위 출범

지난해 광주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전남·전북·제주)에서 산업재해로 200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9일 오전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광주·전남 산재예방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김양현 광주고용노동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재예방자문위원회는 오병선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박영수 민주노동당 광주본부장, 오병교 광주경여자총회 부회장, 정후식 광주일보 편집국장 등 노동·경영·언론·학계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연2회 정기 회의와 세미나를 열어 산재예방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반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노동청 관할 지역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1만650명으로 사망자도 200명에 달했다.

재해율은 광주 0.58%·전남 0.55%로 전국 평균(0.53%)보다 높았다. 특히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전남지역 0.94%로 전국 16

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광주노동청은 평동·점단산단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30~49명 근무) 12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 여부를 진단할 예정이다.

그외 ▲전남대병원 근로자의 유방암 발병을 계기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의료사업장 180곳 ▲발암 물질로 알려진 디젤지게차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45곳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에 따라 배달음식점·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또한 광주청 관할 지역 업무상 질병자가운데 척추측만증 등 근골격계 질환자가 71.9%를 차지하는 점에 착안해 3대 다발 사업장인 기아차(광주공장), 금호타이어(광주·곡성공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방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김양현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대기업에서 위험한 작업은 외주화하는 추세인 한편, 장년·여성·외국인 근로자 등 산업안전 취약 계층이 증가했다”며 “변경된 지역 산업구조를 감안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 기아 내야수 윤완주, SNS ‘일베’ 용어 사용 물의

### 구단, 자격정지 3개월 징계

기아타이거즈 구단이 SNS에 이른바 ‘일베’ 용어를 사용, 물의를 일으킨 내야수 윤완주 선수(2군)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선수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댓글을 올리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5·18 광주민중항쟁을 비하하는 ‘노무노무 일동차렷’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청년 극우주의를 표방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주로 쓰는 표현으로 누리꾼들 사이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윤 선수는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심코 쓴 글이 물의를 일으켜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정 인물을 비하하는 발언인 줄은 몰랐다”고 사과의 글을 올리며 공인

으로서 적절한 언어 선택을 할 것을 다짐했다.

구단 측은 9일 오후 운영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벌 위원회를 열어 윤 선수에게 3개월 동안 경기 출전·훈련 등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 기간 동안 윤 선수에게는 연봉 지급도 중지된다.

기아타이거즈 게시판에는 “자격정지 3개월은 송방망이 처벌이다” 등의 항의 댓글이 60여 건 올랐다.

구단 측은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하고 “선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전체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軍법원, ‘윤일병 사망’ 가해자 4명 살인죄 적용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

다. 성병진 신상정보 등록도 고지됐다. 앞서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작년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가 아닌 상해죄 사죄를 적용해 유죄와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연합뉴스



# 제54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진도에서 개최됩니다.

2015. 4.27.(월)~4.30.(목) 진도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 성화행사 : 4. 27.(월) 09:00~15:00
- 식전행사 : 4. 27.(월) 16:00~17:00  
- 강강술래, 태권도시범, 팝핀현준(박애리) 비보이공연, 진도북놀이
- 개회식 : 4. 27.(월) 17:00~18:00(KBC 생중계)
- 축하행사 : 4. 27.(월) 19:00~20:30  
- 박상철, 조항조, 이진관, 팝핀현준(박애리), 베스트, 레이디티 등
- 경기종목 : 22개종목(정식 20, 시범·전시 2)

Jindo 진도군·진도군체육회

주최 | 전라남도체육회    주관 | 진도군·진도군체육회·가맹경기단체    후원 |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